



한국고전 시번역과 전문사전

김보름
퇴계학연구원 퇴계학사전편찬팀 연구원



“지식은 더 이상 고요히 쌓이는 사유의 집적체가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복제되고 회로 속을 순환하는 정보의 흐름이 되었다. 리오타르의 말처럼, 지식은 이제 정보량으로 번역될 수 있을 때에만 시스템 안으로 진입하고, 새로운 언어의 회로 속에서 유통된다.¹ 지식의 존재 방식, 나아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변형되고 있는 것이다.”

(안양대 동서교류문헌연구사업단, 『동·서 디지털 인문학, 구축·활용·번역』, 2026 / 책머리에)





기계는 인간의 사유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유를 표현하고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오늘날의 학문 생태계는 인공지능(AI), 데이터베이스, 자동화된 언어모델(LLM) 등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연구와 교육의 전 과정이 디지털화되며, 인문학 또한 종이와 텍스트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인문학은 기술과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유와 실천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안양대 동서교류문헌연구사업단, 『동·서 디지털 인문학, 구축·활용·번역』, 2026 / 책머리에)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교육원 한국고전종합DB

확장 기본 디렉토리내서명

한국고전종합DB 전체

한국문집공간 고전번역 고전원문 전문검색

약현유집(藥軒遺集)
 약현집(約軒集)
 양곡유고(亮谷遺稿)
 양곡집(陽谷集)
 양서집(襄西集)
 양심당집(養心堂集)
 양와집(養窩集)
 양원유집(陽園遺集)
 양직집(養直集)
 양촌집(陽村集)
 양파유고(陽坡遺稿)
 양포유고(楊浦遺稿)
 어계집(漁溪集)
 어당집(鰲堂集)
 어우집(於于集)
 어촌집(漁村集)
 여암유고(旅菴遺稿)
 여와집(餘窩集)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第一集詩文集第一卷○詩集
 第一集詩文集第二卷○詩集
 第一集詩文集第三卷○詩集
 第一集詩文集第四卷○詩集

범례 | 목차 | 해제

▲ > 한국문집공간 > 여유당전서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 ▶ 第一集詩文集第一卷○詩集
 - ⇒ 賦
 - ⇒ 詩
- ▶ 第一集詩文集第二卷○詩集
 - ⇒ 詩
- ▶ 第一集詩文集第三卷○詩集
 - ⇒ 詩
- ▶ 第一集詩文集第四卷○詩集
 - ⇒ 詩
- ▶ 第一集詩文集第五卷○詩集
 - ⇒ 詩





2019년 12월 25일
 草木에 꽃이 피는 것과 같다
 2019년 12월 25일

다산학 자료

- [학술지 다산학](#) >
- [다산학 관련 논저목록](#) >
- [다산학사전](#) >

다산학사전

■ 다산학사전



준비중입니다.



18 all selected! ▼

인기검색어 open | 김 | ma | maison | laude



Mukaddimat(1938)
Mongol skij slovar Mukaddimat al-adab Chasty I-3-Poppe(1938)



Arabicum persicum-Wetzstein(1850)
Kitāb Muqaddimat al-adab Samachscharii lexicon arabicum persicum-Wetzstein(1850)



Anamitico-Latinum(1838)
Dictionarium Anamitico-Latinum 南越洋合字彙-Jean Louis Taberd(1838)



韓英大字典(1931)
Gale, James Scarth, 『韓英大字典(The Unabridged Korean-English Dictionary)』(1931)



Latino-Anamiticum(1838)
Dictionarium Latino-Anamiticum-Jean Louis Taberd(1838)



Sylloge Minutiarum Lexici Latino-Sinico(1685)
Sylloge Minutiarum Lexici Latino-Sinico-Characteristici-Mentzel(1685)



辣丁中華字典(1906)
DICTIONARIUM LATINO-SINICUM (1906)



辣丁中華字典(1924)
DICTIONARIUM LATINO-SINICUM (1924)



Shaw's Birds
A Sketch of the Turki Language as spoken in Eastern Turkistan (1880)



라중소사전
Lexicon manuale Latino-Sinicum continens omnia vocabula Latina utilia et primitiva, etiam Scripturae sacrae (1839)



라한사전
PARVUM VOCABULARIUM LATINO-COREANUM: Ad Usum Studiosae Juventutis Coreanae (1891)



드기뉴사전
Dictionarium sinico-latinum, auctore M. de Guignes : Meliori ordine digestu, characteribus sinicis ad voces in phrasibus appositis ; nonnullis linguae sinicae notionibus praemissis labore, cura / ac diligentia Fris Hieronymi Mangieri a S. Arsenio (1853)



라한사전(1936)
Dictionarium Latino-Coreanum (1936)



법한조언
Petit dictionnaire français-coréen-Charles Alévêque (1901)



Shaw's Dict
A Sketch of the Turki Language as spoken in Eastern Turkistan (1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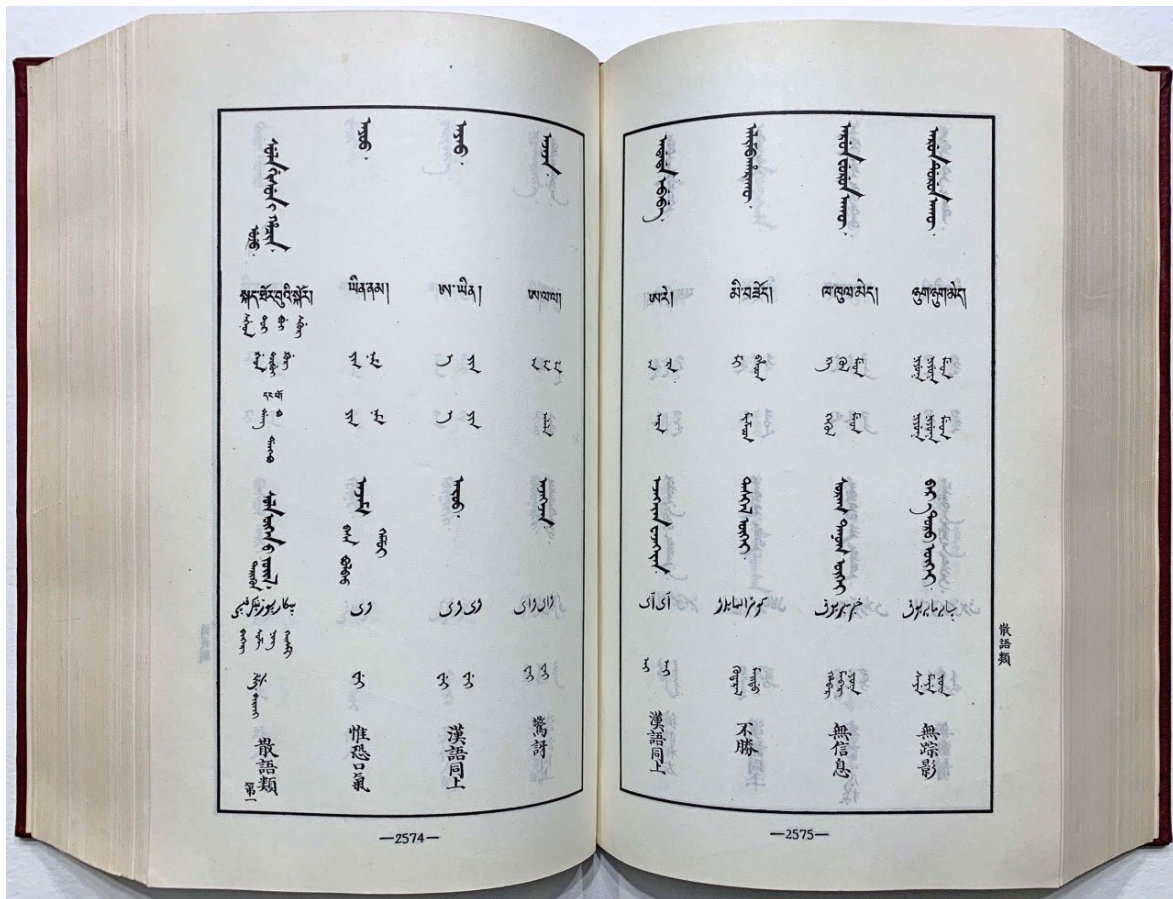
Shaw's Plants
A Sketch of the Turki Language as spoken in Eastern Turkistan (1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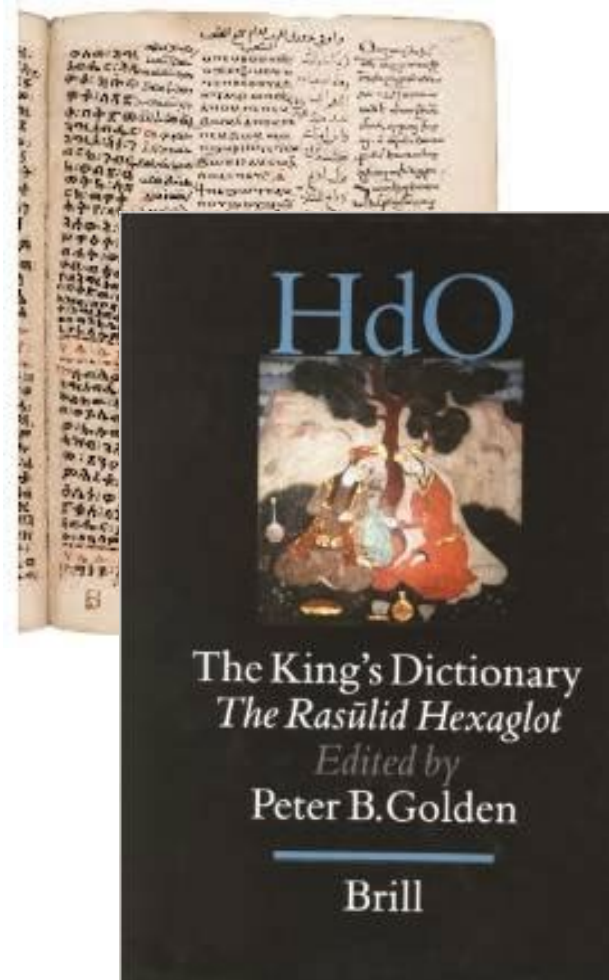
라중대사전
Lexicon Magnum: Latino-sinicum Ostendens Etymologiam, Posodiam Et Constuctionem Vocabulorum (1841)



한불사전
Dictionnaire Coreen-Francois 파리와방전교회 한국전교사들이 편찬한 한국어-프랑스어 사전 (1880)



五體清文鑑



The King's Dictionary. The Rasulid Hexaglot : Fourteenth Century Vocabularies in Arabic, Persian, Turkic, Greek, Armenian and Mongol (Handbook of Oriental Studies), Brill Academic Pub (June 2000)

한국고전 자동번역의 시도

한국고전 자동번역

가 漢 Beta 한문고전 자동번역 도움말

| 승정원일기 원문 | 천문고전 원문 | 번역문 | 어휘사전 |
|---------------------------------------|---------|-----|------|
| <p>승정원일기 원문을 입력하세요</p> <p>0 / 300</p>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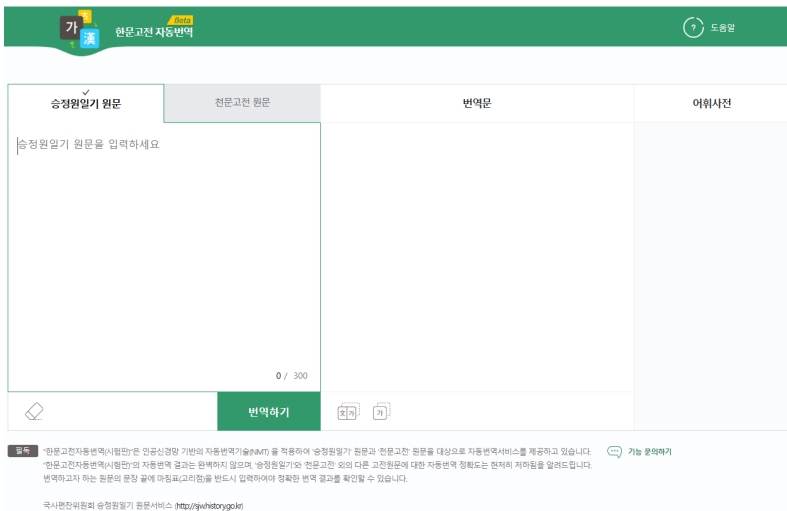
번역하기 지가 가

필독 "한문고전자동번역(시험판)"은 인공지능경망 기반의 자동번역기술(NMT)을 적용하여 '승정원일기' 원문과 '천문고전' 원문을 대상으로 자동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능 문의하기
"한문고전자동번역(시험판)"의 자동번역 결과는 완벽하지 않으며, '승정원일기'와 '천문고전' 외의 다른 고전원문에 대한 자동번역 정확도는 현재 저하됨을 알려드립니다.
번역하고자 하는 원문의 문장 끝에 마침표(고리점)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정확한 번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Machine-Readable 전문 사전인가?



한국고전 자동번역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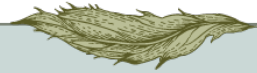


1단계에서 개발 중단: 1단계(시범 서비스 제공) → 2단계(번역 모델 체계 정립) → 3단계(표준화된 자동번역 시스템 구축)'의 총 3단계 공정으로 설계되었으나 1단계까지만 진행.

제한적인 학습 데이터: 다양한 종류의 한문 고전을 포괄하지 못하고 기존에 전산화와 번역이 많이 진행되어 있던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분량이 적은 4종의 천문고전만을 위주로 빅데이터를 축적한 한계.

초벌번역 수준의 품질: 관련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제공되는 자동번역의 품질은 '초벌번역' 수준이며, 완전한 수준의 번역을 제공하기까지는 인공지능을 적용하더라도 꽤 많은 시간과 고도화 작업이 필요한 상황

왜 Machine-Readable 전문 사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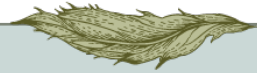
개발 중단 원인

- **정책적/재정적 한계:**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부재했고, 한국고전번역원 자체적으로 개발을 이어나갈 재정적 역량도 부족.
- **시장성 및 인지도 부족:** 현대 외국어 번역에 비해 한문과 같은 사장된 언어는 시장성과 수요가 부족했으며, 한국 인문학계 역시 전통적인 한문 해독 방식을 고수하여 인공지능 기반 연구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낮았음.
- **주관 기관 내부의 문제:** 한국고전번역원 내부에 전산화와 인문정보학을 전공한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 또한, 자동번역 프로그램이 고도화될 경우 오히려 기존의 고전 번역 사업이 축소되거나 번역 단가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기관 내부의 폐쇄적인 분위기도 프로그램 개발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

학술적 의의

- 비록 완벽한 형태로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이 프로그램은 **국내 최초로 전통 인문학인 한문고전 분야에 '딥러닝(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짐.
- 남지만, <한국고전 데이터 댐을 위한 시론>(<동서디지털 인문학, 구축 활용 번역>(동문연, 2026))

왜 Machine-Readable 전문 사전인가?



ChatGPT와 같은 범용 대규모 언어 모델(LLM)은 방대한 일반 웹 데이터와 어학사전을 이미 학습하여 유창한 문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고전 번역과 같은 특수 영역에서는 치명적인 약점 있음.

범용 AI의 한계

- **전문성과 맥락 이해의 부재:** 범용 AI는 특정 역사 시대, 문화적 맥락, 복잡한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이 부족. 통계적 패턴에 기반할 뿐, 한문 고전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Context)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함.
- **환각(Hallucination) 현상:** 검증 가능한 출처가 생명인 고전 연구에서, 일반 AI는 허구의 정보를 사실처럼 지어내는 치명적인 결함을 보임.

심학 心學

[정의] [편집 | 원본 편집]

목차 [보기]

마음[心]을 인간의 본질이자 도덕 실천의 근원으로 보고 그 원리와 방법을 탐구하는 학문.
 관련어: 심성론(心性論), 성리학(性理學), 육왕학(陸王學), 심경부주(心經附註), 성학십도(聖學十圖)

[개설] [편집 | 원본 편집]

전통시대 중국과 한국에서 주로 유학을 가리키는 의미로서 마음의 수양에 초점을 맞춘 **실천적 학문**의 의미로 사용했던 용어이다. 자기 자신의 인격 수양을 위한 학문이라는 의미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지향한다. 특별히 **육왕학**(陸王學)을 심학, 정주학을 리학(理學)으로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 서양식 학문 연구 방법론에 따라 유학을 연구하면서 생겨난 관행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원과 변천] [편집 | 원본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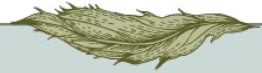
유학의 역사에서 심(心)에 대한 관심은 공자에서 이미 나타났다. 공자는 세속적 삶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그 안에서 대동세계를 열어가는 것을 학문의 목표로 했다. 갈등을 줄이고 더불어 사는 삶이 가능한 이유를 그는 정신작용의 주체인 심의 본질이 인(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그 근거를 체계적으로 밝힌 것은 맹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맹자를 심학의 비조로 본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인(仁)·의(義)·예(禮)·지(智)가 모두 본성 속에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했다. 그리고 선한 본성이 욕망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발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방치하지 말고 거두어 잘 지키는 **존심양성**(存心養性)을 주장했다.

송대 성리학은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하면서 그 범위를 우주 전체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이 선한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우주적 원리에도 합치함을 철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장재**(張載, 1020~1077 자 자후(子厚), 호 횡거(橫渠))는 **심통성정**(心統性情) 즉 심이 성·정을 통섭하는 주체임을 주장하여 심의 역할을 부각시켰고, **정이**(程頤, 1033~1107 자 정숙(正叔), 호 이천(伊川))은 성즉리(性卽理)를 주장함으로써 본성이 곧 보편적 도덕원리이며 이를 실현함을 학문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주희**(朱熹, 1130~1200 자 원회(元晦), 호 회암(晦庵))는 양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계승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 심통성정의 과정에서 주체가 되는 심의 역할을 중시하고 그 근거와 원리를 밝히고자 했다. 그는 심이 성·정을 통섭할 수 있는 근거를 심의 속성인 **허령지각**(虛靈知覺)에서 찾았다. 심의 허령지각을 통해 성은 욕망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정으로 발현할 수 있다고 했다. 이로써 심은 성리학 논의의 중심에 자리잡게 되었고 성리학자들은 유학 자체를 심학으로 칭했다. 그러나 성리학에서는 심의 지각작용의 대상을 **성(리(理))**이라고 하는 도덕원리에 한정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객관적 인식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나아가 허령지각의 속성이 리의 소산인지, 기(氣)의 소산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음으로써 추후 중국과 한국의 성리학계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정주 성리학자들은 리가 만물 가운데 본성으로서 존재한다고 본 데 대해 명대 **왕수인**(王守仁, 1472~1529 자 백안(伯安), 호 양명(陽明))은 리의 객관적 존재를 부인하고, 리는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심(良心)이 대상 사물에 발현된 것**이라고 하여 심즉리(心卽理)를 주장했다. 그는 리의 실현은 심에 달린 것임을 극단적으로 강조했다기 때문에 후대에는 양명학을 곧 심학으로 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자학에서도 결국 리의 실현의 실질적 주체는 심이기 때문에 심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고 굳이 표현하자면 정주학적 심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실학 사상의 대두는 경학이 현실의 통치 구조와 제도 운영의 실제적 개혁에 기여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화하였으며, 李瀾이 『성호사설』³⁾ 「경의」에서 “經者 古之制度之迹也”라 하여 경전을 고대 제도의 흔적으로 규정하고 “制度既變 則解亦宜變”이라 주장한 것은 경학이 시대적 변화와 제도적 조건에 따라 새로운 해석을 요구받는 제도사적 지식 체계임을 밝힘으로써, 경전의 제도적·사실적 성격을 중시하고 이를 현실적 통치 질서의 분석과 개혁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실학적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 1) 『四書集註』는 주희(朱熹)가 『논어』·『맹자』·『대학』·『중용』의 본문을 교감하고 이를 성리학적 관점에서 주석한 사서(四書) 해설의 표준 주석서로, 동아시아 유학 교육과 과거제의 정본(定本) 역할을 한 경학의 기본서.
- 2) ①고염무는 『日知錄』에서 송·명 성리학이 경전을 “의리 명제의 추출 대상으로만 이해하여, 제도와 사실의 맥락을 상실했다”고 비판하며, 경학은 반드시 제도·명물·고사의 실제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顧炎武, 『日知錄』卷一, “經學”.
 ②단옥재는 『說文解字注』 서문에서, 송대 이후 경전 해석이 문자·음훈·제도에 대한 고증을 소홀히 한 채 도덕적 의미 부여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하며, 문자와 제도의 정확한 고증이 경학의 선결 조건임을 강조하였다. 段玉裁, 『說文解字注』序.
 ③정약용은 『經世遺表』와 『孟子要義』 등에서 주희 성리학의 경전 해석이 “의리 해명에는 치밀하나, 제도와 사실의 검증에는 소홀하다”고 비판하며, 경학은 제도 운영과 현실 정치에 적용 가능한 지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3) 『星湖僊說』은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이 평생의 학문적 탐구와 비판적 성찰을 백과사전식으로 집대성한 방대한 저술로, 문학·역사·정치·경제·사회·천문·지리·의학·동식물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총망라한 30여 권 규모의 대작. 제목의 ‘僊說(쇄설)’이 자잘한 이야기나 잡록을 뜻하지만, 이 책은 단순한 잡기류를 넘어 조선 후기 실학의 핵심 문제의식과 사상적 성취가 집약된 대표적 사상서로 평가된다.

왜 Machine-Readable 전문 사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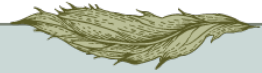


따라서 한국 고전 번역처럼 고도의 맥락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일반 AI가 아닌 특정 도메인에 맞춰 학습된 소규모 거대 언어 모델(sLLM)이나, 외부의 전문 지식베이스를 참조하여 근거 있는 답변을 생성하는 검색 증강 생성(RAG) 시스템이 필수적.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뼈대가 바로 Machine-Readable **전문 사전**.

특히 퇴계학 사전은 AI에게 고전의 맥락과 특수 어휘를 학습시키는 훌륭한 도메인 특화 지식베이스(Data D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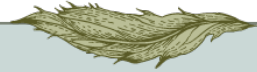
왜 Machine-Readable 전문 사전인가?



도메인 특화 언어 모델(sLLM)의 핵심 학습 데이터: 방대한 일반 웹 문서 대신, 역사 문헌, 철학 논고 등 정제된 인문학 코퍼스(전문 사전)만을 집중적으로 학습시킨 도메인 특화 소규모 언어 모델(sLLM)을 구축해야만 고전 특유의 미묘한 어투와 전문 용어를 AI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시맨틱 데이터(온톨로지)를 통한 의미망 구축: 전문 사전은 단순히 단어의 뜻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 주어+동사+목적어 " 의 구조로 인물, 시간, 공간, 사건 간의 복잡한 관계(온톨로지)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시맨틱 데이터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AI는 단순한 어휘 식별을 넘어 입체적인 역사적 맥락을 추론할 수 있게 됨.

'Machine Readable' 전문 사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퇴계학사전의 구축 단계

1단계 (기획 및 필자 섭외)

- ① 표제어 선정 및 항목 설계
- ② 집필자 후보군 조사
- ③ 집필자 섭외 및 의뢰

2단계 (원고 수령 및 시스템 탑재)

- ④ 원고 수령 및 적절성 판단
- ⑤ (필요시) 개정 의뢰
- ⑥ 사전편집기 탑재

3단계 (데이터 정제 및 구조화)

- ⑦ 교정 및 교열
- ⑧ 색인어 추출 및 기본 정보 작성
- ⑨ 하이퍼링크, 멀티미디어 자료 탑재

4단계 (전문가 검증)

- ⑩ 내/외부 감수 의뢰
- ⑪ 감수 결과 대응

5단계 (최종 서비스)

완료 및 웹 서비스 공개

'Machine Readable' 전문 사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AI의 정확한 맥락 학습을 위한 7단계 미시구조(집필틀) 적용 일반적인 사전이 표제어에 대해 줄글로 의미만 풀이하는 것과 달리, 《퇴계학사전》은 컴퓨터가 정보를 층위별로 명확히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엄격한 미시구조를 채택. 모든 표제어는 구조화된 집필틀에 맞추어 서술. 예를 들면 '정의, 개설, 퇴계와의 관련성, 연원과 변천, 내용(혹은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이라는 7단계. 이렇게 지식을 정형화해 두면, 훗날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객관적인 역사적 팩트(정의/연원)와 후대의 주관적·학술적 해석(의의/평가)을 혼동하지 않고 정확히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음.

14개 항목 유형 세분화를 통한 인문학적 온톨로지(Ontology) 설계 인공지능이 퇴계학의 복잡한 인물망과 지식망을 입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지식 분류 체계를 고도화. 표제어를 단순히 나열하는 대신, 개념, 인명, 지명, 서명, 작품, 관직·관청, 사건, 단체 등 총 14개 이상의 항목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설계. 또한 정보의 규모에 따라 극소, 소, 중, 대, 특대 항목으로 크기를 분류. 이러한 체계적인 유형 분류는 컴퓨터에게 인문학적 지식의 뼈대(온톨로지)를 가르치고 시맨틱 데이터(지식 그래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밑작업이 됨.

'Machine Readable' 전문 사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편찬과 웹 서비스의 일원화: 이 과정은 종이사전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전산화하는 과거의 방식이 아님. 2단계의 ⑥ 사전편집기 탑재'에서 볼 수 있듯, 원고가 수령되면 곧바로 미디어위키(Mediawiki) 기반의 시스템에 탑재되어 편찬 작업과 웹 서비스 구축이 동시에 일원화되어 진행. 위키피디아와 동일한 이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수많은 페이지와 개정 이력 메타데이터가 MySQL이나 MariaDB와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로 체계적으로 자동 관리. 이는 컴퓨터 알고리즘이 내부 데이터 구조에 쉽게 접근하고, 변동 사항을 추적하며, 연계 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전산화 환경을 제공.

구조화와 정제(3단계): 3단계의 교정·교열 및 색인어 추출, 하이퍼링크 탑재 과정은 단순히 오타자를 잡는 것을 넘어, 7단계 미시구조(집필틀)에 맞추어 지식을 정형화하고 데이터 간의 관계를 연결(시맨틱 데이터화)하는 핵심적인 기계가독형 데이터 구축 과정에 해당.

전문가 통제(4단계): 4단계의 감수 과정은 AI에게 주입할 원천 데이터가 허위 정보나 편향성을 갖지 않도록(Garbage-In Garbage-Out 방지), 도메인 전문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답 데이터(로 최종 검증하는 필수 공정.

퇴계학사전 들여다보기

Luna 토론 환경 설정 주시문서 목록 기여 로그아웃

Luna 토론 환경 설정 주시문서 목록 기여 로그아웃

퇴계학사전

대문 토론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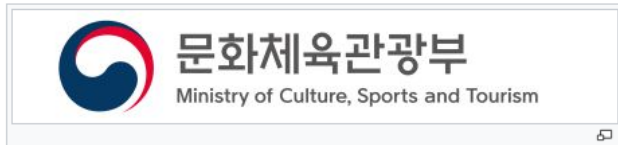
더 보기 ▾

퇴계학사전 검색



대문

《퇴계학사전》은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으로 (재)한국국학진흥원이 기획하고 (사)퇴계학연구원이 주관하여 편찬한 사전입니다.



(1) 표제어 일람

(2) 주제별 분류

* 최근 2주간 변경 목록

2026년 5월 31일 일요일 현재

대문
최근 바뀐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뀐
파일 올리기
특수 문서 목록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이 문서 인용하기

퇴계학사전

대문
최근 바뀐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파일 올리기
특수 문서 목록
인쇄용 판

특수 문서

퇴계학사전 검색



모든 문서

모든 문서 목록

다음보다 뒤에 오는 문서 표시:

다음 보다 앞에 오는 문서 표시:

이름공간:

(일반)

넘겨주기 숨기기

보기

다음 문서 (문소전 부묘 논쟁 文昭殿祔廟論爭)

- (메뉴얼) 인용 글상자 만들기
- (메뉴얼) 접기 펼치기
- (메뉴얼) 집필지침
- (메뉴얼) 표 그리기
- 가감밭온산
- 가례 家禮
- 가례의절 家禮儀節
- 가훈 家訓
- 강대수 姜大遂
- 강박 姜樸
- 강복 降服
- 강세륜 姜世綸
- 강세백 姜世白
- 김우광 金宇宏
- 김우용 金宇顛
- 김유 金綬
- 김윤안 金允安
- 김응생 金應生
- 김응조 金應祖
- 김이만 金履萬
- 김인후 金麟厚
- 김일손 金顛孫
- 김장생 金長生
- 김전 金填
- 김정 金亓 +政
- 김정 金淨

퇴계학사전 들여다보기

퇴계학사전

대문
최근 바뀐
임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뀐
파일 올리기
특수 문서 목록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토론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더 보기 ▼ 퇴계학사전 검색

(메뉴얼) 집필지침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문단제목/문단/1단계하위문단제목 등등..)

목차 [보이기]

《퇴계학사전》 편찬 지침 [편집 | 원본 편집]

본 편찬 지침은 《퇴계학사전》 편찬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편찬의 필요성과 목적 [편집 | 원본 편집]

《퇴계학사전》은 퇴계학의 연구 성과를 통합·정리하고, 퇴계학 연구의 학제화, 다변화 경향을 통섭하며, 퇴계학의 대중화를 위한 웹사전 편찬을 목적으로 한다.

나. 퇴계학의 범위 [편집 | 원본 편집]

퇴계학은 퇴계 자신 및 급문제자의 생애와 학문, 퇴계 후학(後學)의 학문, 근현대의 퇴계 관련 연구 및 그 성과를 범위로 한다.

다. 연구 성과 반영 [편집 | 원본 편집]

《퇴계학사전》은 퇴계학의 연구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최근의 연구 경향까지 포괄하여 반영한다.

라. 지역 정보의 반영 [편집 | 원본 편집]

《퇴계학사전》은 학계의 연구 성과뿐 아니라 퇴계와 그 후학이 활동했던 지역에 남아있는 정보도 포괄하여 반영한다.

마. 퇴계학의 국제화 [편집 | 원본 편집]

국외에서 이루어진 퇴계학 연구 성과를 포괄한다.

바. 집필자 선정 [편집 | 원본 편집]

《퇴계학사전》 항목 집필자는 집필 내용과 관련한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생산한 전문학자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사. 서술의 내용과 방향 [편집 | 원본 편집]

《퇴계학사전》은 철학 분야를 포함해서 가능한 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여 일반인과 전문가가 모두 이해할 수 있게 서술한다.

아. 사전편찬실의 의무와 권한 [편집 | 원본 편집]

《퇴계학사전》의 편찬은 집필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퇴계학사전》 편찬실이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교열과 교정을 통해 편찬한다.

문서 토론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더 보기 ▼ 퇴계학사전 검색

가례 家禮

[정의] [편집 | 원본 편집]

목차 [보이기]

주희(朱熹)의 예서(禮書) 가운데 하나로 관례(冠禮)·혼례(昏禮)·상례(喪禮)·제례(祭禮) 등 가내(家內)에서 시행하는 예식의 제도와 절차를 간명하게 제시한 저작.

동의어: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 문공가례(文公家禮), 주자가례(朱子家禮)

관련어: 예학(禮學),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고례(古禮), 퇴계선생상제례답문(退溪先生喪祭禮答問)

[개설] [편집 | 원본 편집]

《가례》는 관례·혼례·상례·제례 등 가내에서 시행하는 예식의 제도와 절차를 간명하게 제시한 저작이다. 주희(朱熹, 1130~1200 자 원희(元晦), 호 회암(晦庵))가 집필하던 중 미완의 상태로 분실했다가 그의 사후에 되찾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가례》는 가족 내의 다양한 위치와 역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적절히 표현하고 제도로서 수행함을 통해 유가 이념을 일상에서 구현함을 목표로 한다. 조선시대 《가례》 연구는 《가례》의 미비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을 고례(古禮)의 정신에 따라 보완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이항의 《가례》 연구는 한편으로 관련 문헌에 대한 독서를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 《가례》를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에 관한 토론을 통해서 심화되었다. 이항의 《가례》 연구는 이후 조선 예학(禮學)의 발전에 토대가 되었다.

[저술 경위] [편집 | 원본 편집]

주희는 《제의(祭儀)》(실전(失傳))·《고금가제례(古今家祭禮)》(실전)·《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 등 여러 종의 예서를 저술했다. 《가례》의 실물은 주희 사후 처음으로 출현했다. 그의 제자들은 주희가 어머니 상을 계기로 〈상례〉와 〈제례〉를 구성하고, 여기에 〈관례〉와 〈혼례〉를 합해 《가례》를 완성했으나 원고를 미처 다듬지 못한 상태에서 분실했다가 주희 사후에 되찾았다고 생각한다. 〈가례서(家禮序)〉를 제외하면 주희가 《가례》에 대해 직접 언급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가례서〉는 《가례》의 저술 시기나 경위에 관해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주희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가례》를 저술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상지정 사항]

참고문헌



단행본 및 학술 논문

- 고부열, 김병준, 남지만, 박철우, 신원철, 안광호, 전현주, 정진한, 최형근, 허인영, 허철 (2026). 『동·서 디지털 인문학, 구축·활용·번역』 (안양대HK+ 동서교류문헌연구총서 07). 동문연.
- 김바로 (2021). 「인공지능 시대의 사전과 데이터 –한국역사인물사전(데이터)을 위한 탐색」. 『東洋學(동양학)』 제84집, 219-241쪽.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김학재 (2014). 「다산학사전의 유형과 내용 분류 체계」. 『한국사전학』 제23호, 12-24쪽.
- 박만규 (2025). 「새한불사전의 개선 방향에 관한 고찰-AI시대의 사전 기능과 한국 문화용어 기술을 중심으로」. 『Études de Langue et Littérature Françaises』 143호, 121-151쪽.
- 이은령 (2025). 「생성형 AI를 활용한 불한사전(1869) 필사본의 번역과 디지털화 연구」. 『프랑스학연구』 109호, 193-220쪽. 프랑스학회.

참고문헌



보고서, 제안서 및 지침서

- 사단법인 퇴계학연구원 (2023). 『퇴계학사전 편찬 학술용역 사업 제안서』.
- 사단법인 퇴계학연구원 퇴계학사전편찬실 (2024). 『퇴계학사전 집필지침』.

웹사이트 및 기타 문서

- 안양대학교 HK+ 사업단 (2021). "Digital Dictionaries of Central and East Asia (다언어사전 디지털 라이브러리)". <http://library.anyanghkplus.or.kr>
- Classics Wiki (2026). "AI 고전번역학 전문과정". <https://kstoryhub.visualasia.com/classics/wiki>
- 퇴계학사전 (구축중). <https://digitaltg.or.kr>



감사합니다.



lunabrkim@daum.net